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3호(2019): 209~240

논문접수일: 2019. 10. 27. 논문심사일: 2019. 11. 14. 게재확정일: 2019. 11. 23.

<http://doi.org/10.25023/kapsa.16.3.2019.11.209>

노인학대 피해경험 예측요인

심 혜 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홍 송 이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КСІ

노인학대 피해경험 예측요인

심혜인* · 홍송이**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분석 결과
- V. 결 론

[국문요약]

2017년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형사사범 분야에서도 노인의 학대 또는 노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Lachs와 동료들(1997)의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기능, 임상병리학적 요인, 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영향요인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형 노인학대 영향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빈곤, 사적이전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의존성을 추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경제적 의존성, 사회적 관계, 신체적, 심리적 요인과 노인학대 피해경험 간의 예측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性)에 따른 노인학대 피해경험 간의 차이를 T검증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노인실태조사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피해경험에서의 결측값을 제외한 10,07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사적이전을 받는 등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노인,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비동거, 독거노인, 사회적 관계망이 고립되거나 약한 노인, 우울증 증세가 있거나 남성일 경우에 노인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요인인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과 연령, 학력, 월평균가계소득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이 낮은 점이 여성 노인이 갖고 있는 의존성보다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E-mail: simmyosoon@naver.com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E-mail: songiee25@dongguk.edu

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의 구조화된 기회의 제공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성적 차이를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노인학대, 노인방임, 노인의존성, 상황모델, 사회적 연결망

I. 서론

평균수명의 연장, 조기 은퇴 등으로 인해 생애주기에서 노년기의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전체 인구는 줄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4.3%로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18). 이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성공적인 노후 등의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의 노인부양 부담과 침해한 세대 갈등도 표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도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노인 학대이다. 이러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비율이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고령사회의 주요한 노인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고 된 노인학대는 7,662건으로 2017년도 대비 25.5% 증가하였으며, 검거 건수는 2018년에 1,462건에서 2017년도 대비 3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사건에 대해서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신체학대가 1,274건으로 2017년도 대비 37.6%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2018년 94건으로 2017년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이와 같은 노인학대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이 노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자녀에 의한 부모 학대 등으로 노인학대의 가해자 10명 중 9명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²⁾ 노인학대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범죄사건으로, 47세 아들이 72세 노모의 잔소리에 화가나 장시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존속살해 사건도³⁾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표적인 노인학대 사건이다. 또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

1) M이코노미 뉴스 (2019.09.15). “아동·노인,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 아동학대로 인한 검거, 최근3년 간 23.5%증가” 최종검색일: 2019.09.30.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6670>

2) 경찰청 노인학대 사건 송치현황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3) 노컷뉴스. (2019.10.25). “법,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10년” 최종검색일: 2019. 10.25. <https://www.nocutnews.co.kr/news/5233247>

이 발생하자 53세 아들이 77세 노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혀 존속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⁴⁾받은 사건도 있다. 이러한 가정내 노인학대 접수건수는 2013년 2,925건에서 2017년 4,1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체 노인학대 중 90%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또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 ‘부부살인’ ‘황혼살인’으로 일컬어지는 현상 속에는 가정내 노인학대, 가정폭력의 지속성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일례로 2017년 경기도 성남에서 57년의 부부생활 내내 반복되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에 82세 남편을 아내가 살해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2014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법률혼 부부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부부살인’ 100건 중 남편 또는 아내가 60세 이상 배우자를 살인 또는 치사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총 23건으로 나타나 4건 중 1건은 노인 부부간 상해/살인사건이었다.⁵⁾

이러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폭행이 발생했을 것이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 또는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등 학대 은폐가 만연하다. 실제로 80대 노모에게 폭언을 하고 보행 보조기 및 지팡이를 손괴하는 등의 상습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였으나 아내와 노모,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구하여 이를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⁶⁾ 더 심각한 경우는, 상습적인 가혹행위나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가해자 처벌 등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많다.

형사사법절차에서 경찰은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노인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업무 수행 및 위기가정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약 411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APO 1명당 2명에서 58명까지 담당하여 재발 위험 가정을 실질적으로 밀착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⁷⁾.

이에 이 연구는 어떤 특성의 노인이 학대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학대 피해경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현장에서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는 Lachs 와 동료들(1997)의 연구에서 노인학대 영향 요인으로 다룬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 임상병

4) 뉴시스. (2019.10.01.). “재산 분할 문제로 노모 폭행한 50대 아들 징역 1년”, 최종검색일: 2019. 10.2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1_0000786426&cID=10201&pID=10200

5) SBS 뉴스 (2019.10.08.). “[마부작침] ‘부부살인’ 리포트” 최종검색일: 2019. 10.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65384&plink=ORI&cooper=NAVER

6) 한겨레. (2019.10.18.). “아내 상습 폭행·노모에 행패 부린 50대 실형”, 최종검색일: 2019. 10. 20.
<http://www.hani.co.kr/arti/area/gangwon/913726.html>

7) 프레시안. (2018.02.06.). “가정 폭력 전담 경찰관을 늘리자” 최종검색일: 2019. 10.20.

리학적(clinical), 사회적 요인(사회 연결망, social ties)과 같은 노인학대 발생 요인으로 추정되는 변인들에 대한 유의미성을 한국 노인학대 현상에도 적용하여 실증적인 변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최근 실증연구들이 주목하는 한국노인의 빈곤을 주요 변인으로 고려하여 사적이전과 같은 한국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 지표가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포함한 확장된 연구모형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국내연구들은 노인학대 피해 경험이 여성노인이 더 높으며 취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피해경험은 남성노인보다 73.9%이며,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방임·자기방임·유기 등의 세부 노인학대 피해경험 및 재학대 경험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보다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하며, 여성노인의 의존성이 낮을수록 자녀에 의한 경제적 학대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존성이 높을 경우 방임 또는 언어 및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배진희, 정미순, 2007). 이 연구는 이점에 주목하여, 노인의 성별이 학대 피해경험을 예측하는데 영향력 있는 요인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는 노인학대에 신체적 기능, 심리적 요인, 사회적 연결망, 경제적 의존성, 그리고 노인의 성별이 노인학대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로는 「노인복지법」 제1조2제4호에서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9조의9⁸⁾에서는 세부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형법」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가 노인의 학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마련된 법 조항이다.

노인학대의 개념과 정의는 다양한 용어와 내용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다차원적, 사회

-
-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문화적, 국가, 학자 등에 따라 노인학대의 개념은 다르게 정의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유지웅, 2011).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의미한다(박영수, 조용섭, 2014).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학대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언어적, 의료적, 성적 학대를 말하며 방임이나 부적절한 처우도 학대에 포함(오승주, 2017: 7)”하여 정의하고 있다.

2. 노인학대 실태

전반적인 노인학대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1>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112, 119, 정부안내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학대가 신고 접수된 현황과 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현황, 재학대의 10년간의 추이를 정리한 통계치이다. 10년간 노인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노인학대 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15,482건으로 전년대비 14.0% 증가한 수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10년 전 대비 60.4%의 신고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8년 노인학대는 5,188건으로 2017년도에 반해 10.9% 증가한 것으로 10년 전인 2009년도에 비해 48.5% 증가하였다. 재학대 건수 역시 최근 201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에 488건은 학대 사례의 9.4%의 수준이며, 전년도 대비 26.4% 증가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10년간 노인학대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고 건수	6,159	7,503	8,603	9,340	10,162	10,569	11,905	12,009	13,309	15,482
증가율	-	17.9	12.8	7.9	8.1	3.9	11.2	0.9	9.8	14.0
학대 사례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증가율	-	12.8	10.8	-0.5	2.7	0.3	7.5	10.8	7.4	10.9
재학대	269	295	338	298	212	208	229	249	359	488
증가율	-	8.8	12.7	-13.4	-40.6	-1.9	9.2	8.0	30.6	26.4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5, 2016, 2017,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 재구성)

<표 2>는 지난 10년간의 노인학대 성별 현황을 보여준다. 2018년 노인학대 피해경험 여성은 73.9%, 남성은 26.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매년 노인학대 피해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10년간 노인학대 성별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2,674 (100.0%)	3,068 (100.0%)	3,441 (100.0%)	3,424 (100.0%)	3,520 (100.0%)	3,532 (100.0%)	3,818 (100.0%)	4,280 (100.0%)	4,622 (100.0%)	5,188 (100.0%)
남성	810 (30.3%)	979 (31.9%)	1,072 (31.2%)	1,058 (30.9%)	998 (28.4%)	1,053 (29.8%)	1,091 (28.6%)	1,187 (27.7%)	1,162 (25.1%)	1,353 (26.1%)
여성	1,864 (69.7%)	2,089 (68.1%)	2,369 (68.8%)	2,366 (69.1%)	2,522 (71.6%)	2,479 (70.2%)	2,727 (71.4%)	3,093 (72.3%)	3,460 (74.9%)	3,835 (73.9%)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 재구성)

10년간 노인학대 행위자 현황을 정리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2018년도 기준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행위자 비율은 전체의 7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관이 1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에 의한 노인학대가 2009년에는 51.1%인데 반해 2018년에는 전체 학대행위자의 37.2%로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학대행위자의 수는 26.7%증가하였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는 2009년에 비해 2018년에는 82.3%가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의 기관 이용이 증가하면서 기관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도 10년 동안 9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10년간 노인학대 행위자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배우자	279 (9.2)	347 (10.0)	481 (12.4)	494 (12.8)	551 (13.7)	588 (15.2)	652 (15.4)	952 (20.5)	1,263 (24.8)	1,557 (27.5)
아들	1,544 (51.1)	1,685 (48.4)	1,777 (46.0)	1,586 (41.2)	1,619 (40.3)	1,504 (38.8)	1,523 (36.1)	1,729 (37.3)	1,913 (37.5)	2,106 (37.2)
친족 소계	2,601 (86.2)	2,921 (83.9)	3,235 (83.7)	2,954 (76.6)	3,092 (77.0)	2,882 (74.4)	2,940 (69.6)	3,502 (75.5)	3,931 (77.1)	4,458 (78.7)
타인	228 (7.6)	237 (6.8)	228 (5.9)	239 (6.2)	253 (6.3)	246 (6.3)	283 (6.7)	221 (4.8)	176 (3.5)	168 (3.0)
기관	62 (2.1)	115 (3.3)	179 (4.6)	267 (6.9)	293 (7.3)	285 (7.4)	379 (9.0)	392 (8.5)	704 (13.8)	788 (13.9)
본인	128 (4.2)	196 (5.6)	224 (5.8)	394 (10.2)	375 (10.2)	463 (11.9)	622 (14.7)	522 (11.3)	290 (5.7)	240 (4.2)
계	3,019 (100.0)	3,480 (100.0)	3,866 (100.0)	3,854 (100.0)	4,013 (100.0)	3,876 (100.0)	4,224 (100.0)	4,637 (100.0)	5,101 (100.0)	5,665 (100.0)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5, 2016, 2017,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 재구성)

즉, 신고되는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노인학대의 대략 80% 가량이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피해경험은 여성이 70% 이상의 비율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학대행위자를 살펴보았을 때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의 증가는 가정폭력의 고령화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 노인학대의 원인

1) 노인학대 상황모델(Situational Model)

상황모델은 Dollard의 좌절-공격이론에 근거하여 노인학대를 설명한 것으로, 좌절-공격이론은 개인의 활동에 의도적인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공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의 의존성 증가로 인해 부양자의 활동이 방해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함으로써 부양자는 노인에게 공격적 행동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발전하여 부양자나 노인의 병리적 요인이 추가적인 학대의 요인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 모델에서 다루지는 의존성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면 의존성이란, 타인에게 의지하는 성향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자율성과 대비되는 의미이다. Blenkner(1969)은 의존성에 대하여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신체적 의존성(physical dependency), 정신적 의존성(mental dependency), 사회적 의존성(social dependency)으로 구분하였고, Knopf(1975)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 생존적 의존성(survival dependency), 과도한 의존성(excessive dependency)으로 구분하였다. 이 노인의 의존성을 3가지 단계로 나누어, Otten과 Shelley(1976)는 신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일의 단념 단계, 반독립성 또는 반의존성의 단계, 완전한 의존성의 단계 변화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Steinmenrz(1988)의 세부적인 의존성 분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분류 내용으로는 가사일 수행 의존성(Household Tasks Dependency), 일상적인 건강보호 의존성(Personal and Health Care Dependency), 재정적 의존성(Financial Dependency), 이동 의존성(Mobility Dependency), 정서적/사회적 의존성(Emotional/Social Dependency), 정신건강 의존성(Mental Health Dependency)이다(김창기, 박일연, 2003; 12-13).

즉, 상황모델에서 노인학대의 주요원인은 부양부담과 병리적 상태로 노인의 의존성에 기인하고 있다(송영민, 2002: 27-28). 다시 말해 노인학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노인의 의존성이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의존성 증가가 노인학대 발생 가능성 증가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ckey & Duglass, 1981; Lau & Korsberg, 1979; Rathbone-McCuan, 1980; Gordon & Brill, 2001; 권중돈, 2004; 송영민, 2002; 권금주, 2007: 21).

송영민(2002)의 연구에서는 전기 여성노인에서 학대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영향을

주는 의존성 요인으로서는 질병, 규범, 역할상실, 근로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사일 수행의존성과 재정적 의존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학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창기, 박일연, 2003; 20). 한동희(2004) 연구에서는 노인 외 부양할 가족원, 역할 수행 기대, 배우자 상실, 빈곤, 신체적 장애 및 알코올 남용, 가족 구성원 내의 감정적 문제 등의 부양자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해 노인과의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결국 학대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권금주, 2007: 17 재인용).

2) 노인학대 요인 선행연구

노인학대 위험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경제적 의존성, 인지 및 신체의 기능저하, 질병 또는 장애 등을 노인학대 피해자의 개인요인으로 보고 있다(이연호, 2003: 108). 이 중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노인의 학대 피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숙, 1997; 서운, 2000). 2019년 8월 기준 65세 이상노인 7,885,831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8%(454,59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12월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45,955명인 것에 비해 3.46% 증가한 수치⁹⁾이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의 경제적 빈곤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재정적 의존성으로 나타나 노인학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지원과 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고, 노인학대, 착취 등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노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HO, 2002). 국내연구에서는 이성희·한은주(1998)의 연구에서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노인학대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미은(2004)의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이 일반 노인에 비해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가족들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족 간 상호작용의 정도와 노인학대 피해경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llemer & Suitor, 1992).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노인학대 피해가능성이 높았다(한은주, 2000; 이연호, 2002). 가족응집력의 저하가 노인학대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호영 노승현, 2007). 박봉길(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갈등이 노인학대 피해 경험 예측요인으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노인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가족의 지원적 부분은 가족 갈등 정도에 따라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가 약한 노인일수록 학대 경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보선, 2005).

또한 노인의 가족 이외의 친구, 지인등과의 가정 외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이 있는 연구를 살펴본 결과, 노인학대 경험에 사회적 고립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illiland & Jimenez, 1997; 한은주, 2006; 문정애, 황진수, 2009). 또한 노화불안과 같은 개인

9) 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 의원실.

적 상황과 사회활동관계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여성노인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반해 남성노인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관계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망을 노년기 이전부터 여성노인들은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노인의 경우 퇴직 전후로 사회적 관계망에 큰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임정숙, 2018).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가 노인학대 피해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인지 및 신체의 기능저하와 학대 가능성과의 영향관계가 높게 보고되었으며(Bennett & Kingstone, 1993; Lachs et al., 1997), 일상생활수준능력을 평가한 ADL과 IADL 척도를 활용하여 신체적 기능과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정호영, 노승현, 2007). 박옥임(2009)은 농촌지역 학대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DL에 의해 측정된 피해노인의 낮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중요한 학대유발 요인으로 지목한다.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영역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우울증에 주목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우울증 환자는 40.4%에 해당하며, 인구 10만명당 비율은 60대 2,223명, 70대 3,606명, 80대 3,878명으로 노년의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¹⁰). 특히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이혜상, 2018), 남성노인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노인의 우울증은 노인학대 피해경험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Sharma & Kaur, 2016: 72). 노인학대 경험과 우울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선행연구가 많았으나(Dong, 2015; Roepke-Buehler & Dong, 2015), Choi와 동료들(2018)의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노인학대와 우울증 간의 유의미성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Lachs와 동료들(1997)의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요인들을 추가하여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성, 경제적 의존성, 사회적 관계,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분석자료 및 연구의 방법

1) 연구 분석자료

이 논문은 한국노인의 대표성을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피해경험의 예측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 프로그램과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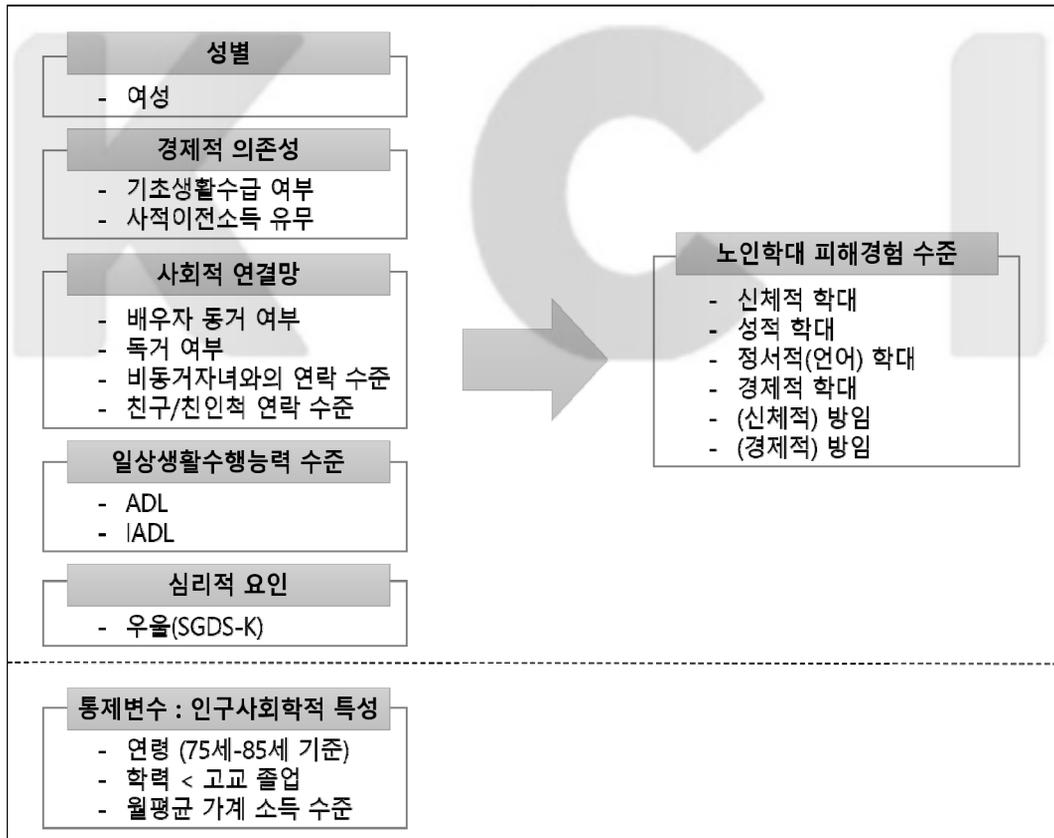
10) 헬스조선 뉴스. 2019. 10. 08. “나이 들어 깜빡깜빡? 치매보다 우울증 의심하세요.” 검색일자: 2019. 10.20.

자 하였다. 이에 단계별 층화표집을 통한 전국 65세 이상의 한국노인 대표성을 담보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전국노인실태조사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65세 이상의 전국 노인 표본 10,229명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 노인학대와 관련된 주요변수의 결측치가 높은 226명의 자료를 제외한 10,073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노인학대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제적 의존성, 사회적 관계, 신체적, 심리적 요인과 노인학대 피해경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연구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SPSS 19.0의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t-test, ANOVA, 교차분석을 통하여 노인학대 피해경험과 각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모델의

분석을 위해서는 노인의 학대피해경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 변수설명 및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노인학대 피해경험 수준

종속변수인 노인학대 피해경험 수준은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적(언어)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방임, 경제적 방임 의 6가지 학대유형에 대한 피해경험의 총합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유사 학대나 비행행위 연구의 경우 다양한 가해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구체적인 가해 행위 유형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누적되기 때문에 이 행위들의 총합을 피해경험의 심각성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성식, 2007; 조운오, 2010)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세부 유형의 학대 피해경험에 노출된 총합을 노인학대 피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세부분항으로는 신체적 학대 “타인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였다(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등)”, 성적학대 “타인에게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경험하였다”, 정서적(언어) 학대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대화 기피, 의견 무시, 못들은 척, 짜증, 불평등)”, 경제적 학대 “타인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내 동의 없이 돈을 쓰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 등)”, 신체적 방임 “가족이나 보호자가 나(건강하지 않을 때)를 돌봐주지 않았다(간병, 청결유지 등의 도움을 주지 않음)”, 경제적 방임 “가족이나 보호자가 거의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로 총 6개 항목이 측정되었다.

2) 독립변수

(1) 성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노인학대 피해경험의 주요 예측변수로 논의되는 성변수를 “여성=1”, “남성=0”으로 더미화하여 활용하였다.

(2) 경제적 의존성

주요 독립변수인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가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여부와 사적이전 소득 변수를 사용하였다. 국가기초생활보장급여의 유무 변수는 연구 대상자 본인이 국가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3가지 유형을 수령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있다=1”, “없다=2”로 측정된 것을 “있다=1”, “없다=0”으로 더미화하여 세 문항 합산한 후, 공적이전 소득에 대하여 “있다=1”, “없다=0”으로 더미변수로 전환하였다. 사적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본인(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정기적 현금 지원, 비정기적 현금지원, 그리고 현물지원 9 가지에 대하여 각각 도움을 받은 유무의 합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사적이전을 받은 경험이 “있다=1”, “없다=0”으로 다시 이항 변수를 조 작화 하였다.

(3)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혼인상태, 독거여부, 대인관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혼 인상태에 대해서는 “미혼=1”, “유배우(기혼)=2”, “사별(기혼)=3”, “이혼(기혼)=4”, “별거(기혼)=5”, “기타=6”, “사망=7”, “비해당=8(만14세 이하)”로 측정된 값에 대하여 “유배우(기혼)=1”, 미혼, 기타, 사망을 포함하여 배우자와의 다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기타=0”으로 더미 코딩 하였다.

노인가구 형태를 측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구를 비롯하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 거노인가구, 노인과 손자녀가구, 노인과 비혈연가구, 요양시설 거주 또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측정한 내용에 대하여 “노인독신가구=1”, “기타=0”으로 더미화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자녀연락’과 ‘지인 및 친인척연락’의 변수를 각각 구분하여 활용하였 다. 우선 ‘자녀연락’의 경우 ‘비동거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왕래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와 연락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 4문항의 총합을 활용하였다. ‘지인 및 친인 척 연락’의 경우 친구, 이웃, 지인 또는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왕래에 대 하여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와 연락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 4문항의 총점을 변수 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왕래(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0”, “거의 매일(주4회 이상)=1”, “일 주일에 2-3회 정도=2”, “일주일에 1회 정도=3”, “한 달에 1-2회 정도=4”, “3개월에 1-2회 정 도=5”, “1년에 1-2회 정도=6”, ‘기타=7’로 측정된 값을 ‘왕래를 거의 하지 않는다’를 제외한 나 머지 항목은 역코딩 한 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왕래 또는 연락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타는 결측값이 많아 제외하였다.

(4) 신체적 기능

노인 생활의 수행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체적 기능 상태를 측정하 기 위하여 일상생활능력수준(ADL) 7가지 문항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수준(IADL) 10문항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일상생활능력수준(ADL)의 “완전자립=1”, “부분도움=2”, “완전도움=3”으 로 측정된 것을 “완전자립=0”, “도움=1”로 재코딩하였다.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수준(IADL)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완전자립=0”, “도움=1”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5) 심리적 요인

노인학대의 예측변인으로 설정된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에 의한 총점이 계산되었다. 총 15문항으로 “1=우울감이 있음”으로 합산한 후 8점 이상이면(조명제 외, 1999: 59)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력, 월평균 가계 소득을 살펴보았다. 연령은 “65세-74세 이하”, “85세 이상”으로 각각 더미변수 처리하여 연령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력은 “미취학=0”, “무학(글자모름)=1”, “무학(글자해독)=2”, “초등학교=3”, “중학교=4”, “고등학교=5”, “대학교(4년 미만)=6”, “대학교 이상=7”로 측정된 변수를 “고등학교 졸업 이상=1”, “고등학교 졸업 미만=0”으로 더미 변수화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연소득 총액을 계산하여 월평균 가계소득의 평균 변수를 통제하였다.

IV. 연구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0,073)

구분	범주	빈도	(%)	기술통계
연령	65세-74세 이하	5,850	(58.1)	Min= 68 Max= 109 M=77.33 (SD=6.5)
	75세-84세 이하	3,450	(34.2)	
	85세 이상	774	(7.7)	
성별	남성	4,286	(42.5)	-
	여성	5,788	(57.5)	
혼인상태	배우자와 동거	6,416	(63.7)	-
	배우자 사망	3,138	(31.2)	
	배우자와 이혼	365	(3.6)	
	미혼	52	(0.5)	
	기타(별거/기타)	102	(1.0)	
가구형태	노인독신가구	2,416	(24.0)	-
	노인부부가구	4,908	(48.7)	
	자녀동거노인가구	2,371	(23.5)	
	기타	379	(3.8)	

구분	범주	빈도	(%)	기술통계
월평균 가계소득 (만원)	50만원 미만	3,758	(37.3)	Min= 0 Max= 2,586 M=98.75 (SD=116.89)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048	(30.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961	(19.5)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978	(9.7)	
	400만원 초과	203	(2.0)	
	결측값	125	(1.2)	
기초생활 수급대상	수급대상자	704	(7.0)	-
	비수급대상자	9,369	(93.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와 같이 요약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7.33세로, 연령은 65세 이상 74세 이하가 5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75세 이상 84세 이하가 34.2%, 85세 이상은 7.7% 수준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57.5%, 남성이 42.5%로 여성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혼인상태로는 배우자와의 동거가 6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1.2%가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로는 노인부부 가구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독신가구 24.0%, 자녀동거노인가구가 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의 경우 98.75만원이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고, 50만원 미만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30.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경우는 7.0%(704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5.8%로 분석된 통계(국정감사자료, 2019)와 비교해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따른 특성

1) 노인학대 피해경험

노인학대 피해 내용을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노인학대 피해경험의 경우 9.8%(991명)가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지난 1년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학대의 경우 7.8%, 중복학대의 경우에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학대 피해 행위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았을 때, 7.4%로 정서적(언어)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방임이 2.3%, 신체적 방임 1.7%, 경제적 피해 0.4%, 신체적 피해 0.3%, 성적피해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노인학대 피해경험

(n=10,073)

구분	범주	총계		남성(n=4,286)		여성(n=5,788)		
		빈도	(%)	빈도	(%)	빈도	(%)	
노인학대 (M=0.12, SD=0.397, Min=0, Max=4)	피해 없음	9,082	(90.2)	3,876	(90.4)	5,206	(89.9)	
	피해 있음	단일학대	787	(7.8)	319	(7.4)	468	(8.1)
		중복학대	204	(2.0)	90	(2.1)	114	(2.0)
		소계	991	(9.8)	409	(9.5)	582	(10.1)
노인학대 행위별 구분	신체적 피해	34	(0.3)	19	(0.4)	15	(0.3)	
	성적 피해	5	(0.1)	1	(0.0)	4	(0.1)	
	정서적(언어)피해	741	(7.4)	302	(7.0)	439	(7.6)	
	경제적 피해	41	(0.4)	16	(0.4)	25	(0.4)	
	방임(신체적)	168	(1.7)	62	(1.4)	102	(1.8)	
	방임(경제적)	232	(2.3)	100	(2.3)	132	(2.3)	

2) 노인학대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특성별 비교

노인학대 피해경험 유무와 연구대상자의 주요특성을 비교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혼인상태, 가구형태, 월평균가계 소득, 기초생활수급대상여부, 사적이전소득 여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 유무, 친구, 지인, 이웃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왕래 및 연락 유무, 우울증세 유무의 요인은 노인학대 피해경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은 58.7%, 남성은 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65세 이상 74세 이하가 54.9%로 가장 많았으며, 75세 이상 84세 이하가 37.1%, 85세 이상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교 졸업이상이 22.6%, 기타 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의 혼인상태의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13.34, p<.001$). 학대피해 경험이 있는 노인의 51.1%가 배우자와의 동거하는 형태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사망 38.7%,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가 8.2%, 별거 또는 기타의 경우는 1.4%, 미혼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 역시 노인학대 피해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79.32$). 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의 39.6%가 노인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였으며, 독신가구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35.3% 이었다. 자녀동거노인가구는 21.3%, 기타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없는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 49.7%, 자녀동거 노인가구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대상자 학대 피해경험에 따른 특성의 차이

(n=10,073)

구분	범주	학대 피해있음		학대 피해없음		통계값(p)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	409	(41.4)	3,876	(42.7)	$x^2=0.69$
	여성	581	(58.7)	5,205	(57.3)	
연령	65세-74세 이하	544	(54.9)	5,306	(58.4)	$x^2=4.71$
	75세-84세 이하	368	(37.1)	3,082	(33.9)	
	85세 이상	79	(8.0)	695	(7.7)	
혼인 상태	배우자와 동거	505	(51.1)	5,911	(65.1)	$x^2=113.34^{***}$
	배우자 사망	383	(38.7)	2,754	(30.3)	
	배우자와 이혼	81	(8.2)	283	(3.1)	
	미혼	6	(0.6)	45	(0.5)	
	기타(별거/기타)	14	(1.4)	87	(1.0)	
가구 형태	노인독신가구	349	(35.3)	2,066	(22.8)	$x^2=79.32^{***}$
	노인부부가구	392	(39.6)	4,515	(49.7)	
	자녀동거노인가구	211	(21.3)	2,159	(23.8)	
	기타	37	(3.7)	341	(3.8)	
학력	고교졸업 이상	224	(22.6)	2,293	(25.2)	$x^2=3.33$
	기타	767	(77.4)	6,789	(74.8)	
월평균 가계 소득 (만원)	50만원 미만	405	(41.3)	3,352	(37.4)	$x^2=13.91^{**}$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89	(29.5)	2,759	(30.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1	(20.5)	1,758	(19.6)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72	(7.3)	905	(10.1)	
	400만원 초과	13	(1.3)	189	(2.1)	
기초생활 수급대상	대상	145	(14.6)	559	(6.2)	$x^2=98.74^{***}$
	비대상	846	(85.4)	8,523	(93.8)	
사적 이전소득	있음	174	(17.6)	2,020	(22.2)	$x^2=11.41^{**}$
	없음	816	(82.4)	7,062	(77.8)	
비동거 자녀/ 손자녀	연락/왕래 있음	893	(94.5)	8,611	(99.2)	$x^2=386.52^{***}$
	연락/왕래 없음	52	(5.5)	68	(0.8)	
친구 등/ 친인척	연락/왕래 있음	969	(98.1)	8,975	(98.9)	$x^2=4.79^*$
	연락/왕래 없음	19	(1.9)	102	(1.1)	
우울	증세 있음	377	(38.1)	1,747	(19.2)	$x^2=190.51^{***}$
	증세 없음	613	(61.9)	7,335	(80.8)	

*p<.05, **p<.01, ***p<.001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월평균 가계소득(만원)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9.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5%,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7.3%, 400만원 초과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피해 경험에 없는 경우에는 50만원 미만 37.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8%로 학대 피해경험을 한 노인의 월평균 가계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x^2=13.91$, $p<.01$).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14.6%,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없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6.2%인 것으로 나타났다($x^2=98.74$, $p<.001$). 또한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 중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노인은 17.6%,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없는 노인 중에서 사적이전 소득이 있는 노인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x^2=11.41$, $p<.01$).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 중 비동거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연락 또는 왕래가 없는 노인은 5.5%,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없는 노인은 0.8%인 것으로 나타났다($x^2=386.42$, $p<.001$). 학대 경험을 한 노인의 1.9%가 친구 또는 친인척과의 연락 및 왕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학대피해 경험이 없는 노인(1.1%)보다 높은 수치이다($x^2=4.79$, $p<.05$).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 중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은 38.1%로 이 수치역시, 학대피해 경험이 없는 노인(19.2%) 보다 현저히 많게 나타났다($x^2=190.51$, $p<.001$).

2) 성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주요특성의 차이

노인의 성비율은 고령자 통계(2018)에 따르면 여성 57.3%, 남성 42.7%로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 성비(여성 57.5%, 남성 42.5%)와 비슷한 수준이다(통계청, 2018: 22). 기존 학대연구에서 두드러진 젠더이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성에 따라 어떠한 주요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적 차이를 설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즉 어떤 노인여성이 학대 피해경험에 노출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성차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에 의한 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

구분	남성(n=4,286)		여성(n=5,788)		통계값(p)
	M	(SD)	M	(SD)	
연령	77.1	(6.3)	77.5	(6.7)	t=-3.30**
가구월 평균소득	142.5	(150.5)	66.3	(67.4)	t=30.92***
비동거 자녀/손자녀 왕래 및 연락	7.8	(2.4)	8.0	(2.3)	t=-3.93***
친구/친인척 왕래 및 연락	11.8	(4.3)	12.5	(4.2)	t=-8.36***

구분		N	(%)	N	(%)	통계값(p)
학력	고교졸업	1,620	(37.8)	897	(15.5)	$x^2=653.37^{***}$
	기타	2,665	(62.2)	4,890	(84.5)	
ADL (Cronbach's $\alpha=.79$)	도움받음	193	(4.5)	512	(8.8)	$x^2=71.36^{***}$
	완전자립	4,092	(95.5)	5,276	(91.2)	
IADL (Cronbach's $\alpha=.90$)	도움받음	624	(14.6)	1,684	(29.1)	$x^2=294.59^{***}$
	완전자립	3,662	(14.5)	4,103	(70.9)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218	(5.1)	485	(8.4)	$x^2=44.13^{***}$
	비대상자	4,067	(94.9)	5,302	(91.6)	
사적이전	받음	797	(18.6)	1,397	(24.1)	$x^2=44.36^{***}$
	받지 않음	3,488	(81.4)	4,390	(75.9)	
배우자 동거	있음	3,661	(85.4)	2,754	(47.6)	$x^2=1524.40^{***}$
	없음	624	(14.6)	3,032	(52.4)	
독거노인	해당	467	(10.9)	1,947	(33.7)	$x^2=698.96^{***}$
	비해당	3,817	(89.1)	3,839	(66.3)	
우울 (Cronbach's $\alpha=.89$)	증세 있음	738	(17.2)	1,386	(24.0)	$x^2=66.96^{***}$
	증세 없음	3,547	(82.8)	4,401	(76.0)	

* $p<.05$, ** $p<.01$, *** $p<.001$

이 연구의 경우, 평균연령이 여성 77.5, 남성 77.1로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월 평균소득의 경우 남성이 142.5만원, 여성이 66.3만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과 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적이전과 기초생활수급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에서도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동거, 독거노인 우울의 요인들과 성별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의 85.4%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여성은 47.6%로 남성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여성 33.7%, 남성 10.9%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세 유무는 여성 24.0%, 남성 17.2%로 여성의 비율이 각각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위험 변인에서 여성 노인의 비율이 남성 노인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사회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접촉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3. 노인학대 피해경험 예측요인분석

노인학대 피해 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참조). 이 연구의 최종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노인학대 피해경험의 7.1%정도 예측할 수 있는 설명력을 보였다($R^2=.071$). 세부적으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노인학대 피해경험 수준에 성별의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력이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여성노인과 비교하여 남성노인일수록 오히려 노인학대 피해경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028$, $p<.01$).

<표 8> 노인학대 피해경험 영향요인 분석

변수	S.E.	B	t(p)	
성별(=여성)	.009	-.028	-2.486*	
경제적 의존성				
기초생활수급	.018	.080	7.763***	
사적이전	.013	-.037	-2.817**	
사회적 연결망				
배우자 동거	.015	-.038	-2.073*	
독거	.017	.056	3.110**	
비동거자녀/손자녀 연락	.002	-.145	-13.898***	
친구/친인척 연락	.001	-.030	-2.758**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				
ADL	.017	.011	1.009	
IADL	.011	.013	1.083	
심리적 요인				
우울	.011	.115	10.75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65세-74세 이하	.009	.018	1.639
	85세 이상	.016	-.018	-1.686
학력 (>고교졸업)	.010	-.001	-.062	
월평균 가계소득	.000	.015	1.211	
N		9,6		
F		57.947***		
R^2 (adj R^2)		.073(.071)		

* $p<.05$, ** $p<.01$, *** $p<.001$

경제적 의존성에서는 기초생활수급($B=0.080$, $p<.001$)과 사적이전소득 유무($B=-2.817$, $p<.01$) 모두에서 노인학대 경험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거나 사적이전을 받지 않는 노인일수록 학대피해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에서는 비동거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연락수준($B=-.145$, $p<.001$), 독거노인($B=.056$, $p<.01$), 친구, 지인 및 친인척과의 연락수준($B=-.030$, $p<.01$), 배우자 동거 유무($B=-.038$, $p<.05$) 순으로 노인학대 피해경험수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분석되었다.

즉, 비동거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연락수준이 낮거나, 독거노인이거나, 친구, 지인, 이웃, 형제 자매를 비롯한 친인척과의 왕래가 없거나 연락 수준이 낮은 경우 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와 동거 하지 않는 경우 학대피해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증세 유무($B=.115$ $p<.001$)가 노인학대 피해경험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일수록 학대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연령,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 학력, 소득수준은 노인학대 피해경험과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및 함의

2017년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인구 비율이 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곧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채 7년도 남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현 제도가 미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제도적 정비를 할 겨를 없이 초고령사회의 길목에서 고령사회 이슈들을 대면하고 있다. 이에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노인의 학대 또는 노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당위성에 부합하는 노인학대 피해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도출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피해경험과 상관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성차, 경제적 의존성 사회적 관계,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노인학대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연결망에서 비동거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연락수준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기존의 피해자 즉 노인의 의존성을 주요 변수로 설명하는 것(김창기, 박일연, 2003; 권중돈, 2004)과는 달리 노인의 의존성보다도 학대의 보호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검증된 결과이다.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신체적 기능의 저하는 누구나 겪는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존성 그 자체에 대한 개입보다는 추가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환경을 개선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보호인자로서의 사회관계망의 확장과 가족관계는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제도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심리적 요인 우울증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이 높은 노인을 케어하는 것은 돌봄노동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학대의 원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학대피해 노인들이 보이는 주요 증상이기도 하다(Wong & Waite, 2017; 박금령, 정진주; 2017). 이 연구와 같은 횡단적 연구설계로는 이 두 변수의 원인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다른 부분은 기초수급대상자, 사적이전소득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인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 노인학대 피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연구결과로(이영숙, 1997; 서운, 2000; 김창기, 박일연, 2003), 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사적이전 소득도 없는 경우 학대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함의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노인은 58%정도 내외이며, 실질적으로 개인 총소득 내에서 이러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3% 정도 미약한 수준이다(윤석명, 2019). 공적 사회보장이 현실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사적이전의 의존율은 높을 수밖에 없지만 노부모 부양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어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감소추세(최옥금, 이은영; 2017: 20)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경제적 부양 부담이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또한 사적이전의 의미를 재해석해 볼 필요도 제기되었다. 여성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의 비율과 사회적 연결망 모두 남성 노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연결망이 공고한 노인일수록 사적이전과 같은 형식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사적이전의 수준이 가족의 부양부담 혹은 경제적 생계로 이어지지 않는 수준 내에서 그 효과가 단순히 경제적 의미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연결망 요인에서는 독거노인이거나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에 노인학대 피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구형태가 노인으로 하여금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노인가구의 형태가 대인관계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환경적 조건을 설명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접촉이 없는 노인들이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비동거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연락과 친구, 지인 및 친인척과의 연락수준을 높임으로써 노인학대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며, 소외노인의 문제가 단순히 정서적 차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릴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다시 말해 단순히 동거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거 형태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모든 세대에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8). 비단 노인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젊은 세대의 1인 가구 증가는 노인 세대로 이어져 노년기 1인가구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 독거노인 세대는 1인가구로 살아온 경험이 적으며, 사회적 환경 역시 아직까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고립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인 가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될 필요함을 제시하는 결과이며 1인 가구를 고려하지 못한 제도적 지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결과에서는 기존의 기관 보고서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노인학대 피해경험 요인으로 노인의 성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남성일수록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지만 않지

만, 연구모형에 포함된 다양한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때, 신체적 노인학대 피해경험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단순히 빈도 차이로만 분석되어 기존의 여성 노인이 주로 학대의 피해자로 정형화되어 온 결과들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했다. 기존의 노인학대 자료로 주로 인용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노인학대현황보고서는 노인학대 신고 접수된 사례에만 국한된 것으로 노인학대 은폐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어 있다. 또한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의 학대 피해사건이 신고되거나 경찰 또는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서 발굴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결과에서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의존성, 우울증, 가구의 형태에서 여성노인의 위험성이 남성노인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노인이 노인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데에는 비동거자녀 및 손자녀 또는 친구, 지인, 친인척과의 연락수준 등의 사회적 연결망 요인이 중요하게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이 낮은 점이 여성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보다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도 은퇴이후의 사회적 단절 및 고립상태에 놓이는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은 끊임없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형성해 나간다는 결과를 도출해왔다(임정숙, 2018). 즉 지역사회 내 남성 노인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특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노인학대 경험을 측정한 6개의 항목들에 대한 타당성을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서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 방임, 경제적 착취(구걸, 금품 갈취 등), 정서적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아동학대와 달리 노인학대행위자가 ‘누구든지’로 명시되어 있어, 법률적 정의에 근거한 명확한 정의를 조작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신체적 노인학대 문항에서 “타인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였다(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등)”의 경우 정확한 주체가 언급되지 않고 막연하게 타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가족을 포함하였는지, 자신 외의 모든 사람들을 타인으로 인식하였는지 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확한 범주를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8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7년에 비해 2016년에 노인범죄¹¹⁾비율 중 강력범죄에서 폭력이 9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간 폭력사건이 보다 빈번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체적 학대 항목의 타당성 측면에서 일방적인 학대행위가 아닌 타인과 노인 간의 폭행에 대해서도 응답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측정의 오류를 줄이고 학대 개념의 타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인학대 법적 정의가 명문화 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학대 발생장소 또는 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범위를 구분하여 학대행위자를 세분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의 89.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뒤이어

11)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61세 이상을 노인범죄로 보았다.

생활시설 및 병원에서 8.6%가 발생(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에서 학대행위자를 “보호자, 성인”으로 명시한 것처럼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이나 보호자”, “시설의 담당자 또는 요양보호사 등”, “이해관계가 없는 무관한 타인” 등으로 학대행위자의 구분을 법률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가정내 노인학대, 시설내 노인학대, 사회적 노인학대 등으로 노인학대의 범위를 구분하여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방법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K C I

< 참 고 문 헌 >

- 고보선. (2005). 노인학대 위험요인이 학대 심각성 인지 및 학대 경험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1): 91-121.
- 국정감사자료. (2019). 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 의원실.
- 권금주. (2007).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가해며느리 경험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권중돈. (2004).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19.
- 경찰청자료. (2019). 경찰청 노인학대 사건 송치현황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 김창기·박일연. (2003). 노인의 의존성 및 부양자 행동통제기술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농어촌 경로당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0(1): 7-28.
- 문정애·황진수. (2009). 노인상담서비스가 여성노인 학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복지연구』, 45(1): 141-177.
- 박금령·정진주. (2017). 노인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대의 유형과 중복 경험,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3): 170-190.
- 박미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학대 관련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2): 93-119.
- 박봉길. (2005). 가족갈등을 매개로 한 노인학대의 경험에 대한 노인학대인식과 가족지원의 인과관계 분석. 『노인복지연구』, 28(1): 403-428.
- 박영수·조용섭. (2014). 노인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3(3): 112-113.
- 박옥임. (2009). 농촌지역의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사회지원체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369-384.
- 배진희·정미순. (2007). 노인학대 영향 요인의 성별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36(1): 35-62
- 서 윤. (2000).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송영민. (2002). 『女性 老人의 依存性과 虐待經驗에 관한 一考察』.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오승주. (2017). 『노인학대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유지웅. (2011). 노인학대 조기발견 대책과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 25(1): 87-114.
- 윤석명. (2019). 2018년 정부 연금 개편안 평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 1-59.
- 이성식. (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 이성희·한은주. (1998).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18, 123-141.
- 이연호. (2002).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연호. (2003). 노인학대 위험요인 및 특성이 학대로 인한 피해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2): 105-123.
- 이영숙. (1997).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359-372.
- 이혜상. (2018).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증과 관련 요인-생활습관, 정신건강, 만성질환 및 영양상태 중심으로-: 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24(2): 169-180.
- 임정숙. (2018). 노인의 노화불안이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와 성별차이.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3(1): 417-443.
- 정호영·노승현. (2007).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우울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4), 789-805.
- 조맹제·배재남·서국희·함봉진·김장규·이동우·강민희. (1999). DSM-III-R 주요우울증에 대한 한국어판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8(1).
- 조운오. (2013).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117-142.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09). 『2009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_____. (2010). 『2010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_____. (2011). 『2011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_____. (2012). 『2012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_____. (2013). 『2013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_____. (2014). 『2014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_____. (2015).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_____. (2016). 『2016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_____. (2017). 『2017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_____. (2018). 『2018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최옥금·이은영. (2017).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자체 연구보고서. 1-91.
- 한동희. (2004). 노인학대상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2): 195-211.
- 한은주. (2000). 『노인학대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자대학교.
- 한은주. (2006). 『노인 학대 의 원인 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한국 학술 정보.
- 통계청. (2018). 2018 고령자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통계청 보도자료.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ELDER ABUSE NEGLECT IN SEARCH OF SOLUTION*. APA, Rights and Permissions, 750 First Street, NE, Washington, DC 20002-4242.
- Bennett, G., & Kingston, P. W. (1993). *Elder Abuse: Concepts, Theories and Interventions*. Springer.
- Blenkner, M. (1969). The Normal Dependencies of Aging. In R. A. Kalish (Ed.) *The Dependencies of Old People*. Ann Arbor, Michigan: Institute of Gerontology, University of Michigan: Wayne State University, 1969.
- Choi, Y. J., O'Donnell, M., Choi, H. B., Jung, H. S., & Cowlshaw, S. (2018). Associations among elder abuse, depression and PTSD in South Korean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9): 1948.
- Dong, X. Q. (2015). Elder abuse: systematic review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3(6), 1214-1238.
- GILLILAND, N., & JIMENEZ, S. (1997). Elder Abuse in Developed and Developing Societies. *At the Crossroads of Development: Transnational Challenges to Developed and Developing Societies*. 65, 88.
- Gordon, R. M., & Brill, D. (2001). The abuse and neglect of the elderly. In *Aging: Caring for Our Elders* (pp. 203-218). Springer, Dordrecht.
- Hickey, T., & Douglass, R. L. (1981). Neglect and abuse of older family members: Professionals' perspectives and case experiences. *The Gerontologist*. 21(2): 171-176.
- Knopf, O. (1975). *Successful Aging*. Viking Adult.
- Lachs, M. S., Williams, C., O'Brien, S., Hurst, L., & Horwitz, R. (1997). Risk factors for reported elder abuse and neglect: a nine-year observational cohort study. *The Gerontologist*. 37(4): 469-474.
- Lachs, M. S., & Pillemer, K. (2004). *Elder abuse*. *Lancet*, Vol. 364, 1263-1272.
- Lau, E. E., & Kosberg, J. I. (1978). *Abuse of the elderly by Informal Care Providers: Practice and Research Issues*. Chronic Illness Center.
- Otten, J., & Shelley, F. D. (1976). *When Your Parents Grow Old*. Funk & Wagnalls.
- Pillemer, K., & Suito, J. J. (1992). Violence and violent feelings: what causes them among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47(4): S165-S172.
- Sharma, R., & Kaur, R. (2016). Elder abuse, depression, relationships and attachments: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on Ageing in Developing Countries*. 1(1): 68-81.

- Steinmetz, S. K. (1988). *Duty bound: Elder abuse and family care* (Vol. 166).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Rathbone-McCuan, E. (1980). Elderly victims of family violence and neglect. *Social Casework*, 61(5): 296-304.
- Roepke-Buehler, S. K., Simon, M., & Dong, X. (2015).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multiple dimensions of depression, and elder abuse: A cross-sectional, population-based analysis of older adults in urban Chicago.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7(6): 1003-1025.
- WHO.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Chapter 5. Abuse of the elderly*]. https://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world_report/chapters/en.
- Wong, J. S., & Waite, L. J. (2017). Elder mistreatment predicts later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Results from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29(1): pp.15-42.

<Abstract>

Predictors Associated with Elder Abuse in Korea

Sim, Hye-In* · Hong, Song-Iee**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suggested by Lachs and colleagues (1997), we attempted to extend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elder abuse, especially focusing on physical function, clinical pathological aspects and social networks. We conducted multivariate analyses on the impacts of economic dependence, social relationships,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elder abuse. Furthermore this study model examined additional effects of economic dependence based on poverty and private transfer within their families among older adults. Lastly, older adults' gender was design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is study which might explain predisposing conditions of abuse in domestic settings.

It was found that those who received public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ose who did not receive private transfers within families, and those who were not living with their spouses, those who had weaker social ties, and those who were more depressed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elder abuse. Interestingly, lower social ties of male elders as compared to female elders made them more exposed to abuse. These findings imply that more structured opportunities for expanding older adults' social networks should be offered through education, activities and programs in a community. In addition, a specialized program for somewhat isolated male elders should be advanced for their greater social networks by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in sociocultural contexts.

Key Words: Elder Abuse, Elder Mistreatment, Dependence of Elderly, Situational Model, Social Ties.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Dongguk University-Seoul.
E-mail: simmyosoon@naver.com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guk University-Seoul.
E-mail: songiee25@dongguk.edu



심혜인(沈惠仁):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에서 “청소년 사이버 일탈 요인에 관한 연구”로 범죄학 석사학위를 2013년에 취득하였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에서 범죄학 박사과정에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2018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교정프로그램 참여가 재범역에 미치는 영향: 노인수형자 유형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인식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학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홍송이(洪松柳): 사회노년학자로서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노인 가족수발자의 대처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Ph.D.)를 2008년에 취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권기반 노인 돌봄, 생산적 노령화, 노년기 건강행위 연구에 관심이 있으며, 최근 “가정내 노인학대 실태조사” 및 “재가복지 영역의 노인인권실태조사” “한국노인의 경제적 학대 대응방안” 등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КСІ